

참고 견뎌내면 결국 합격이라는 결실을...



김민혜

-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졸업
- 2021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1년도 합격생 김민혜입니다. 저는 수기를 읽으시는 후배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만 제 공부법이 모두에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공부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하고 각자에게 알맞은 공부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II.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시험

저는 2017년 평균 94.3점으로 고득점을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루틴을 형성하여 매년 같은 방식으로 피셋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당 루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큰 틀은 12월 실전모의고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차시험 2주 전부터는 매일 기출문제를 한세트씩 풀었다는 것입니다.

(1) 언어논리 영역

저는 논리파트가 약하기 때문에 매년 추석때 진행되던 이나우 강사님의 논리 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하여 논리학에 대한 지식을 상기시킨 뒤 언어논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에 1월

실전모의고사 기간부터 매일 모의고사를 풀고, 이후에는 시험 2주 전부터 기출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한 용도로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최근 언어논리 경향은 단순히 선지를 확인하고 본문을 읽는 형태로 고득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문을 모두 다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아 표시하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에는 논리파트의 이론공부 이외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며 자주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2) 자료해석 영역

자료해석은 제 주력과목이었습니다. 주력과목이라 생각이 들면 조금 소홀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해석 역시 12월 석치수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기간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며, 학원 모의고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매일 10페이지씩 석치수 선생님의 계산연습을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 했습니다. 계산연습과 동시에 유형별 400제를 하루 20문제씩 풀었고 400제를 모두 푼 이후에는 기출변형 문제집을 하루 20문제씩 기출문제 풀이 이전까지 월-금으로 매일 풀었습니다.

실전모의고사 기간에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유형 풀이하는 접근법을 만들었고 해당 접근법은 매년 기억이 리셋되어 매년 새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접근법은 유형별 400제를 풀 때 확신으로 만들 수 있었고,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에는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상황판단 영역

상황판단은 1월 박준범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학원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유형별 200제를 통해 유형별 감각을 익혔습니다. 일치부합의 경우에는 선지와 지문을 비교하면 되고, 계산문제가 나올 경우에 실수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풀면 되었지만 법조문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접근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문은 선지와 법률간 1: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면 됐지만 유독 저에게 어려운 토지나 부동산 관련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걸려 2턴에 풀기도 했습니다. 수리나 퀴즈의 경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곧바로 풀되, 주어진 모든 조건을 사용할 것을 되뇌이며 풀이했었습니다.

유형별 문제집의 장점은 내가 부족한 유형을 연속해서 풀이하면서 나만의 풀이법을 만들어갈 수 있고 동시에 해당 풀이법이 명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 번 적응을 하면 해당 유형에 있어서는 정확도나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

헌법은 김유향 선생님과 선동주 선생님의 강의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선동주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2018년도에는 심화강의를, 2019년도에는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고 2020년도에는 김유향 선생님의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법조문 특강을 매년 수강했으며 헌법 법조문 책을 구매하여 해당 책에 헌법 재판소법이나 기타 판례들을 추가하여 단권

화했습니다. 법조문 특강 외에 강의를 안듣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강의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익혔습니다. 또한 매년 최신판례가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최신판례특강을 듣거나 자료를 구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5급 및 7급, 사법고시 문제 등 기출문제 모음집을 구해서 풀어봤습니다.

2. 제2차시험

(1)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 답안의 틀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답안의 틀은 1.개념 2.문제 풀이 3.그래프 4.함의(필요한 경우)로 거의 고정시켰으며 그래프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불의타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종휴 선생님의 연습책, 정선, 임봉욱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이규명 선생님의 문제집, 강사 모의고사와 대학모의고사들을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경제학 스터디를 시작한건 3순환 시기였는데, 하루 20~30문제씩 연습책을 풀고 스터디원들끼리 몇문제를 골라서 백지답안을 쓰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학은 여러 번 읽어보는 것 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되, 단순히 문제만 풀고 지나가는 것 보다는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를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왜 틀렸고,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맞는지, 다음 번에 또 풀었을 때 정확한 과정으로 답을 맞출 수 있는지의 과

정을 거쳐야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집을 풀 때 한 번 풀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회독 해가면서 못푸는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3순환기간 이후부터 황종휴 선생님의 정선 문제집을 혼자 5회독 하면서 단권화 하였고, 국제경제학의 경우에는 국제경제학 모의고사zip과 정선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개념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문제, 내용을 알고있으면 좋을 문제들을 모아서 단권화 시켰습니다. 경제학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답을 맞추는 것이지만, 답을 도출하는 과정도 일정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해당 쟁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함의를 적어 이 문제가 왜 중요했는지 알고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정 역시 신경 쓰면서 문제 풀이하시길 바랍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쟁점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논리와 문제점, 사안포섭을 작성하는 능력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쟁점공부를 할 때 암기로 끝내기 보다는 해당 쟁점이 문제로 나올 경우에 논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관련된 판례를 추가시키면서 암기장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많이들 쓰시는 암기장이 아닌 박도원 선생님의 암기장을 썼을 때 장점은 타 암기장을 쓰시는 분들에게 없는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문제점에서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 작성해주려고 했으며 판례를 쓸 때에는 통상 써야하는 판례문구 외에 쟁점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해당 판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사안 포섭을 할 때에는 문제의 의도 및 연결된 설문을 고려해서 답을 내리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적법한가?가 설문1이고 설문2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판단하는 문제라면 일단 설문1에서 기각을 시킨 뒤 사정판결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설문2의 논리를 펼치는데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답안작성을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암기 뿐 아니라 판례공부가 필요합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그 전반적인 내용까지 알아두는 것이 판례를 이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례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알아둘수록 문제의 정답이나 판례에 기반한 사안 포섭을 할 수 있어지며 답안에 논리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듣는 강사님의 판례집을 구매하여 함께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시험 직전에 진행하는 류준세 선생님의 판례특강을 통해 주요 판례를 정리했었습니다.

(3) 정치학

정치학은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것이 불의타에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1-3문의 경우에 정답을 맞히는 경우에 점수를 주고 아닌 경우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 줬습니다. 따라서 정치학은 일단 이론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각 파트의 흐름을 익힌 뒤 최대한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교재를 선택해서 n회독 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학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본강의들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익힌 뒤 답안작성 연습을 하되, 답안작성 단계

에서 최고답안이나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보면서 취할 것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학은 현실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분들의 답안을 통해 모르는 사례는 내 사례로 만드는 방식, 평상시 굵직한 정치뉴스를 챙겨보는 방식, 평상시에 정치문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정치학 강의를 통해 쟁점별로 사례를 정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학의 경우 서론과 결론에서 설문과 관련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현실사례, 함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점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쟁점이나 이론별 학자를 정리해서 답안작성에 활용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답안작성을 위한 문제풀(pool)은 강사 모의고사보다는 20여년간의 기출문제를 파트별로 나눠 정리한 자료를 구하셔서 쟁점별로 풀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쟁점은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예상을 하고, 그 때 답안에는 어떤내용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과정은 정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100점분량의 답안을 써보면서 정치학 답안작성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4) 행정학

행정학은 정치학과 같이 논문과목이지만 답안작성 방식이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최대한 넓게 공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할 수 있으나 장·단점을 묻는 문제가 많고, 이러한 문제는 한 두가지 장단점보다는 다양한 장단점을 목차화 시켜서 눈에 떨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이

름을 적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론이 다양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이론들의 장단점을 암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개념이나 특징을 토대로, 그리고 주어진 사례에 따라 장단점을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발력은 평소에 행정학을 공부할 때 장단점을 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닌 개념과 특징을 통해 도출하는, 즉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행정 가치, 이론, 거버넌스, 각론의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경우에 암기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강의만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독하는 방식으로 재미있는 행정학이나 한국행정학을 읽어보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학 공부는 올해 1월에 기출문제를 풀고, 4월부터는 답안특강을 수강했고 아침 발제식 스터디를 통해 답안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답안작성 연습을 충분히 한 뒤 5월 말부터는 집중적으로 암기를 시작했으며 6월 말부터는 답안을 거의 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암기에 비중을 더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까지 답안을 많이 작성해 봤기 때문에, 언제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이전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Ⅲ. 기타 수험생활

1. 공부시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2019년에는 6시간 ~ 9시간 반 정도의 순 공부시간을 확보했으며, 2020년에는 8시간

~11시간, 2021년에는 10시간~14시간의 공부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신기했던 것은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감정이 들었다는 것과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적 향상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읽으시면서 투입 대비 산출이 확실한 시험이라는 것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매년 최연소 합격생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합격소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공부 길을 가셨으면 합니다. 다만 공부시간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하루동안 해야 할 양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 측정은 핸드폰 사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열폼타 어플을 사용했고, 행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다른분들과 나홀로 경쟁을 했었습니다.

2. 스터디

스터디 방식은 2차과목 위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형태의 스터디를 이어 나갔습니다. 첫째, 답안스터디입니다. 답안스터디는 4~6명의 스터디원으로 꾸려서 매일 아침 출석체크 겸 8시에 시작해서 답안작성 후 2명씩 돌려보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50~70점의 간단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고, 2회독 이후부터는 70~100점의 실제 시험분량의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선택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이루어졌는데, 각 과목당 일정을 정하고 해당 일정 내에서 진도별로 발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제는 스터디원들이 돌아가면서 했고, 입법고시 2차시험 이전에 1회독을 끝내고

행정고시 2차시험 이전에 3회독을 끝낼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갔습니다. 해당 스터디 방식은 스스로는 답안을 많이 쓰면서 나만의 답안작성 틀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다른사람들의 답안을 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사람들의 발제에서 불의타를 만날 수도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막상 답안으로 써보려니 안써지는 경우들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기스터디입니다. 소위 암기스터디는 일정 분량을 암기하고 백지에 작성하거나 구멍뚫은 자료를 채우는 형태로 진행하곤 하는데, 저는 '말로하는' 암기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스터디는 광범위한 양의 논문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훑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1:1 스터디로 스터디원분과 같은 책으로 매일 분량을 정해서 암기하고,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말로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해당 방식은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암기하는 데 활용했었습니다.

스터디는 최대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마음맞는 스터디원들과 잘 지내는것도 좋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거리를 두시며 너무 놀지 않도록 분위기 형성하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조율 해 나가면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체력관리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고관절과 어깨, 손목, 엄지손가락이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말까지 주 2회 필라테스를 하면서 고관절과 어깨 통증을 많이 줄였고, 손목과

엄지손가락 통증은 신경외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신경주사를 맞았습니다.

4. 여가시간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어들어 주로 잠을 보충하거나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몸을 최대한 쉬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계속해서 놀고싶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최소화시켰으며 놀고싶을때 스터디원들과 한 과목 끝낼 때마다 회식을 하는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었습니다.

IV. 나가며

함께 합격한 스터디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장기적인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 정리, 공부의 폭을 넓히는 것, 스터디 이렇게 네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인내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단권화를 시키거나 나만의 최고답안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떤 쟁점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터디는 공부를 강제해주면서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내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참고 견뎌내면 결국 합격이라는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슬럼프가 오더라도 공부를 놓지 마시고 스터디 하나라도 더 구해서 공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본인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